나무가 많으니 열매도 많다

3 - AUG - 9
Copy ______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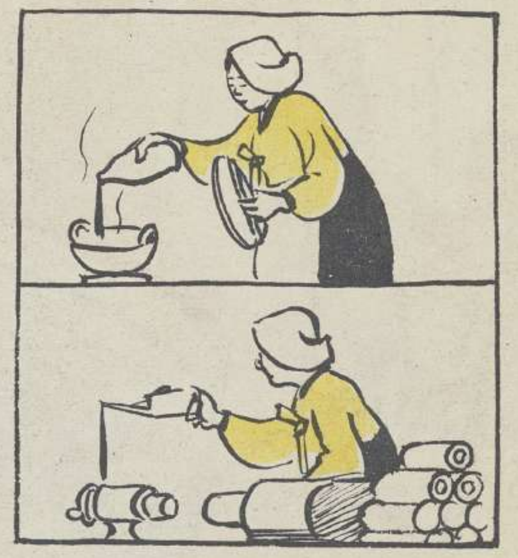
화살

1959년 10월 상반호(111)

접근 되였다

최 영근 그림

유의하게 된 솜씨



지방 원료 탐구의 장수

또 하나의 배움터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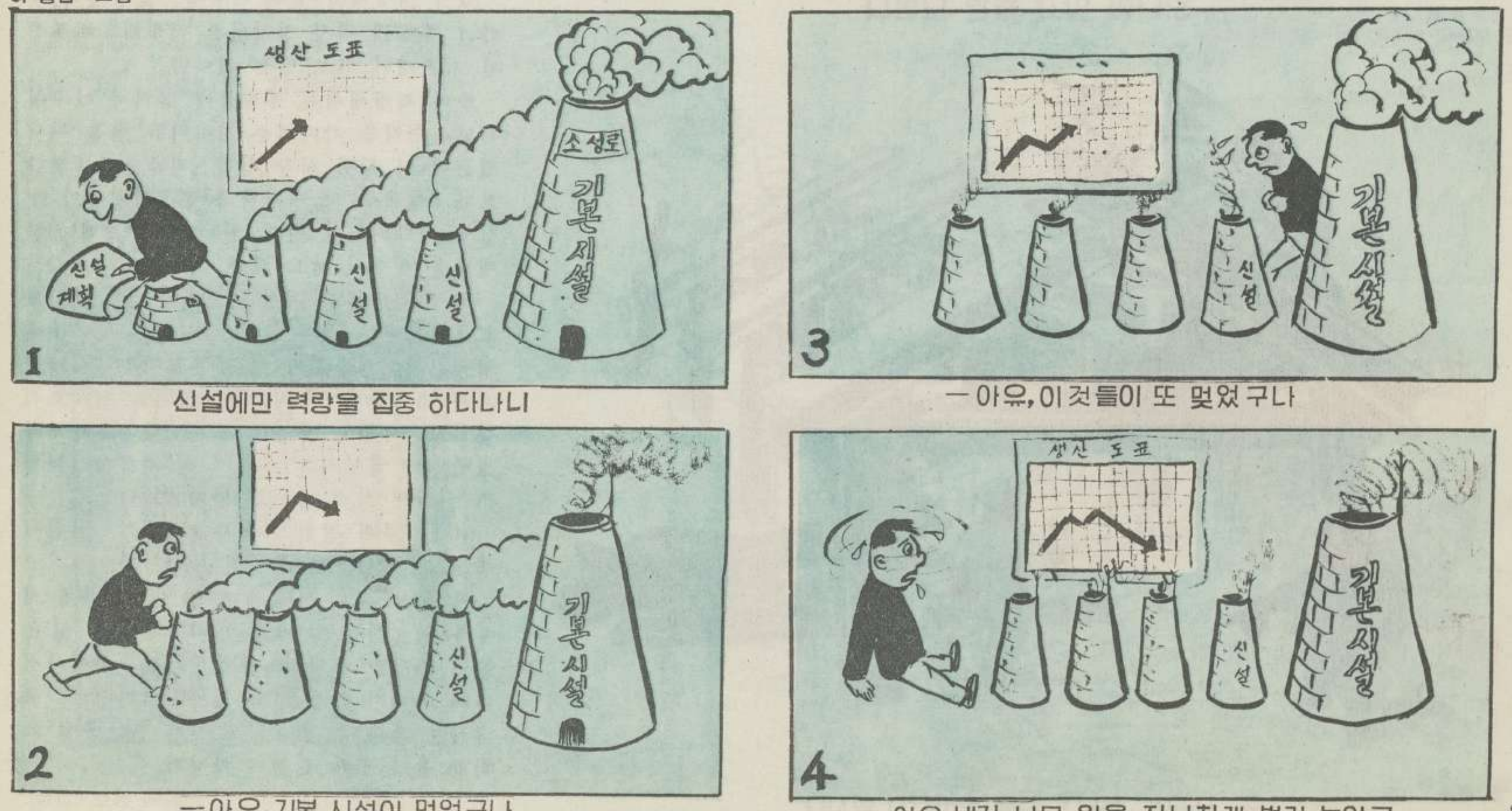
《사업에서 성과의 여부는 자기의 력량을 옳게 타산하며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며 중심 고리를 틀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김 일성)

널어 놓고 분주하다

백 인균 그림

일을 지나치게 벌려놓은 결과

리 용남 그림



1 신설에만 력량을 집중 하다나니

2 —아유, 기본 시설이 멎었구나

3 —아유, 이것들이 또 멎었구나

4 —아유, 내가 너무 일을 지나치게 벌려 놓았군

운전대를 바로 잡지 못한 일'군들

△조직 사업에서

《생일 날 잘 먹겠다고 닷새를 굶으니까 죽드란》말이 있다.

철 없는 사람의 우스개 소리라고 듣고 넘길 수만도 없는 말이다.

평양 철도 공장 지도 일'군들이 언제부터 생일날을 월말로 정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대들이 월초에는 출출히 굶다가 월말에 가서는 배가 터지도록 한꺼번에 먹어야 했으니 하는 말이다.

중기 기관차나 객차 수리 직장에서와 보조 직장들에서의 실정이 그러하다.

중기 기관차 수리 직장이나 보조 직장들에서 이구 동성으로 하는 말이

《소재만 제때에 대준다면…부속품 예비만 갖추어져 있다면…계획을 초과 하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업무부 일'군들은 일 할 것이 드리 밀려서 숨이 막힐 지경이 돼야만 자재를 대주거든요!》

《우리는 작년 말에 금년도 계획을 토의할 때 기관차 2대분 이상의 부속품 예비를 보유하기로 결의했지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며칠 전 일이다.

스ㅍ다 149호차가 불을 때고 시운전까지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안전변 용수철》만 달면 수리는 완전히 끝난다. 그런데 생산부에서는 용수철 생산 조직을 안했을 뿐더러 단야 직장에서 넉넉히 잡고 하루면 되고도 남을 용수철을 길게 여드레나 끌어서 모처럼 수리를 끝낸 기관차는 용수철을 기다려 8일간이나 머물러 서 있어야 했다.

원래 수리할 기관차를 받을 때에는 한달 전에 그에 대한 부속 준비를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여 있건만 언제나 차가 들어와서 해체해보고 그 때부터 쇠를 부어 가지고 하다나니 돌격 작업은 계속되면서 기일을 보장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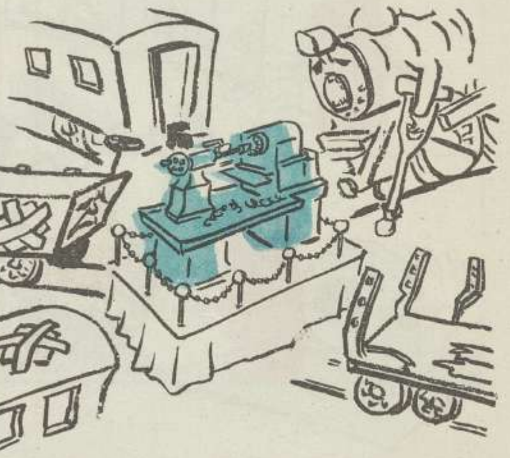
이렇게 소재도 부속품도 제때에 보장 못하고 일부 직장들에 부족되는 로력도 아랑곳 없이 계획부에서는 생산 계획만 내려 먹이면서 게다가 기관차 신조요, 객차 신조요 하고 로력만 분산시켜 왔다.

그러는가하면 월초에 토의한 공정은 며칠에 한 번씩 변동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기관차 못 나와도 좋다》《주문품부터 해라》고 웨치게까지 됐다. 이렇게 되고보니 기본 공정이 죽어 들어 갈건 뻔한 일이다.

이처럼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지 못하고, 주먹치기로 닥치는대로 사업하다나니 8월에는 객차 수리 계획을 57.2%로, 기관차 수리 계획은 겨우 19.9%로 아주 락후한데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계획은 계속 미달하면서도 외부 주문품에 기본 로력을 돌리다나니 공장 자체의 것은 겨우 30%의 비중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이 조직 사업을 되는 대로 한 결과 생산에서의 편파성은 여전히 파도를 치고 생산 성과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설비 리용에 대한 관심

각종 선반기, 라사 절삭반, 그외에 많은 새 기계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청년 직장이다.

2분이면 라사가 하나씩 나올 수 있는 라사 절삭반은 그대로 세워 놓고 그 옆에서 청년들이 선반기로 라사를 깍고 있다. 선반기는 불이 나게 돌아도 이 동무들은 하루에 20개의 라사를 겨우 깍는 형편이다. 그래서 라사는 계속 딸리기만 한다.

단야 직장에서 규격 제품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사 절삭반은 이렇게 폐품처럼 기지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수리 직장에서는 부속품에 걸려서 아우성치고, 수리를 기다리는 기관차는 줄을 지어 섰는데 이 청년 직장 설비 리용률은 7월달보다 8월에는 더 내려와 45%, 기대들이 주인을 기다리건만 지도 일'군들은 오래'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단야 직장에서 괴대가 못쓰게 되여 간다고 로동자들은 두달전부터 여러차례 업무부에 달려갔다. 그렇지만 업무부에서는 괴대쯤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듯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에 쓰고 있는 괴대가 절반이나 끓어지고 기계가 설 지경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급해서 달려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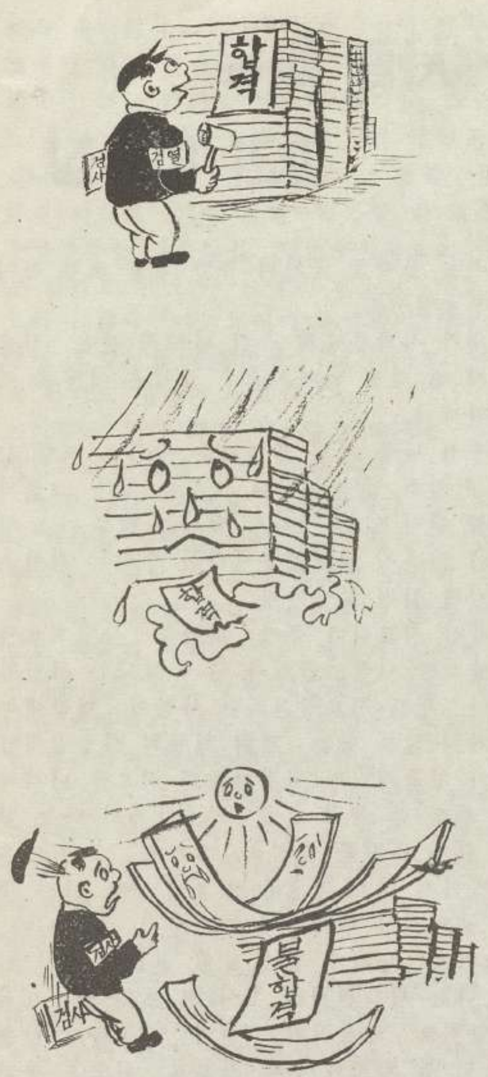
로동자들과 같이 아파하고 자기 일같이 좀 미리 달렸으면 좋음직한 일이다.

이 공장 지도 일'군들과 늘 이 공장에 지도를 나오시는 성 공장 관리국 지도 일'군들이 실정과 유리된 주관주의를 벗어나서 아래 사람과 항상 접촉 할 때 〈기관차 못 나와도 좋다〉는 헛소리도 없어지고 중심 고리를 틀어 잡게 될것이 아닐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홍 종호 그림

— 지배인 동무! 철을 랑비하지 맙시다



자강도 종남 작업소
김 성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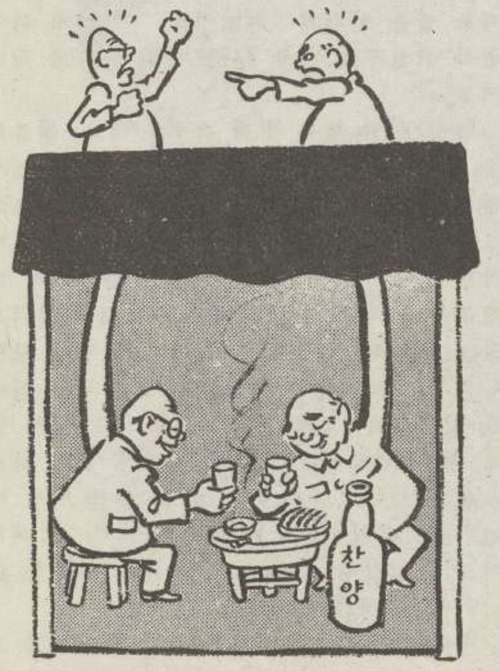
착각하지 말라

신포 선박 수리 공장에서는 동기 어로 작업을 앞둔 어선들의 수리를 완만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물고기의 찬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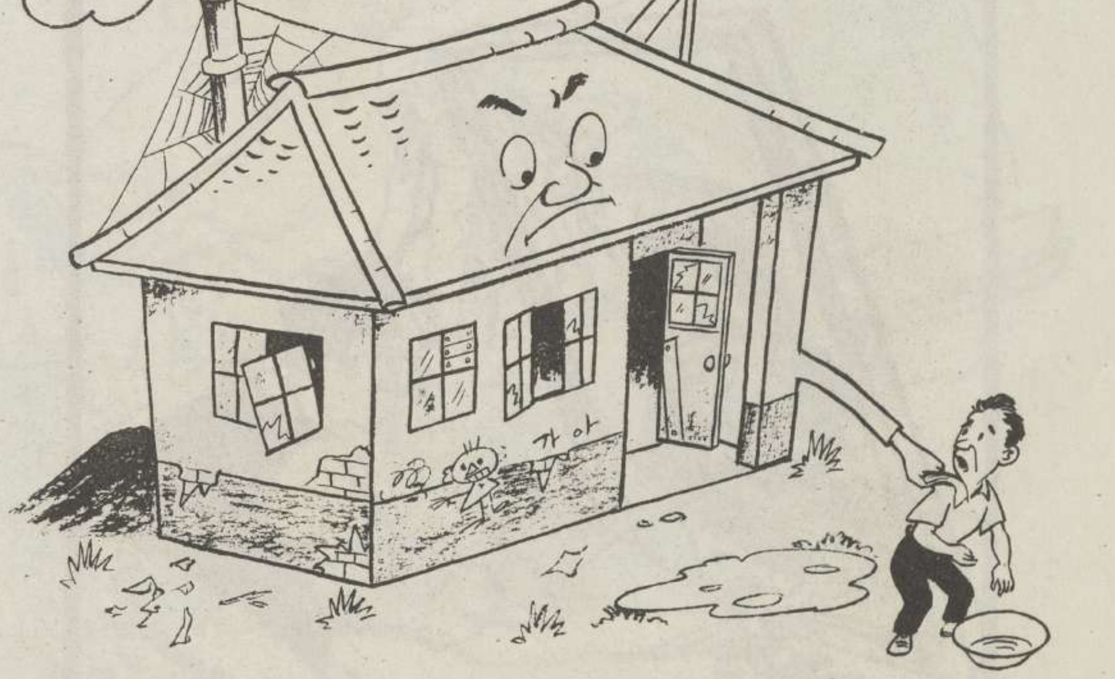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새형"의 가족주의



최 영근 그림

일부 일'군들 가운데는 남이 해줄 것만 믿고 집 하나 수리하지 않으며 그 좋은 집도 거두지 않는 낡은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여보, 나는 동무 믿고 살지 않소?!

원 광수 그림

일에는 찌돌이 먹는데는 감도리

조 명식 그림

끝 없는 휴식

—아직 처녀들도 쉬는데 푹 쉬자
—아직 아저씨도 쉬는데 푹 쉬자
함남도 홍상군 운봉 농업 협동 조합 한 상윤 그림

일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집체적 협의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관리 위원장 "협의"한다

최 영근 그림

《사람 좋은》 관리 위원장

저는 봉산군 구연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 나쁘지 않은 평을 받게 된 경위 말이지요? 그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선 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조합 관리 위원회 일'군들인데 그것은 내가 그들과 제일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는 데도 다소 원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되는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생산 지도원은 무사 태평한 사람으로써 그날그날 어물어물해서 넘겨 보내는 사람입니다. 생산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밤낮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만 앉아 건들거리며, 작업반들에 지도를 나가라고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번 싫은 소리를 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아마 내가 돌아서면 주먹질이래도 할지 모릅니다. (그까짓, 남에게 밉게 보일 필요가 있나)하고 나는 생각했지요. 그래서 조회 때 그저 먼발치로 에둘러서 〈관리 일'군들이 일을 좀 더 잘 합시다〉하는 정도로 변죽을 울리고는 비판도 추궁도 안합니다. 생산 지도원은 이렇게 돼서 나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게 되였지요

그리고 검사 위원회 위원장은 참 허수아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금년에 들어와 6월에야 우에서 지도를 왔기 때문에 둬번 위원회 사업을 해 보았을 뿐이고 그냥 자리 지킴만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검사 위원회에서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하고 말했지만 그냥 그 탁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거) 그래서 나는 검사 위원장에게도 말을 안하게 되였지요. 이렇게 되여 검사 위원장은 나를 나쁘다군 안하게 되였지요.

밭에 베여 놓은 추작 옥수수'대도 씰로쓰를 만들 수 있도록 마르지 않게 묶어 놓지 않아 다 말라 버리고 9월 중순까지 씰로쓰도 계획의 2,9% 밖에 못했고 퇴비도 얼마 작만 못하고 밑을 잘 털지 못한 낟가리가 몇개씩이나 되며 도급제, 현물 우대제도 안되고 있고 …관리 일'군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으나 관리 일'군들은 일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몇번 말해도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에—라 그까짓, 남에게 듣기 싫게 그럴게 있나, 내가 하지)하고 혼자 뛰여 다닙니다. 관리 일'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끄럽게 굴지 않으니 그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게 되였지요.

작업 반장들은 요먼저도 둬달 동안이나 로력 점수를 매기지 않고 있는것을 우에서 지도를 내려와서 〈정리〉해 준 일이 있지요. 그래서 작업 반장들에게 로력 평가를 꼭꼭 제때에 하군 하라고 이야기 했지요. 그러나 그 후에 작업 반장들의 로력 평가 정형을 검열하고 추궁하고 하지 않았더니 요즘 듣는 바에 의하면 계속 로력 평가를 한 열흘씩 두었다가는 짐작해서 평균주의적으로 매기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보도 매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털같이 많은 세상에 호박처럼 둥실둥실 지내지 하고 추궁도 안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작업 반장들 한테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였지요.

그리고 조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거나 재정을 지출할 일이 있을 때에도 많은 경우에 조합원 총회나 대표자 회에서 토의하지 않고 관리 위원회에서나 내 혼자 결심으로 처리해 버리군 했기 때문에 회의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은 나를 규약에만 매달리지 않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하게 되였지요.

그리고 지금은 철직되였지만 건달 피우고 부화하고 관료주의자였던 전 생산 부위원장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있다면 그에게서도 나는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고 있는데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 들고 그 반면에 나를 보신주의자니, 나 같은 사람에게 그냥 조합 살림을 맡겨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돌아가니 참 웬 일일가요? 리 운봉

추경 때는 왔건만

허 능택 그림

땀을 짜는 젖소

홍 종호 그림

젖소—땀 밖에 나올 것이 없수다
관리 위원장—……

9월 23일 공화국 내각은 최근 혹심한 자연 피해를 입고 생사기로에서 헤매는 남조선 풍수해 리재민들을 구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포애적 조치

최 영근 그림

성 황 당

류 계환

9월 중순 남해안 일대를 침습한 태풍은 바다에서 수백 척의 선박들을 침몰 파손시키고 륙지로 기여 올라와 전라 남북도와 경상 남북도의 대소 도읍들과 민가를 습격하여 수 많은 인가와 전답을 뒤집어 쓰고 인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9월 23일 현재 풍수해로 입은 피해는 리재민만도 78만 8천 여 명, 피해액은 872억 5천 여만환에 달했다고 한다.

《에고, 순이 어매, 이 일을 우짜노?》

《그놈의 성황당 때문이지》

폭풍우에 단간 초가를 날려 보냈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남편과 딸 자식마저 잃은 경북 월성군 숫재'골에 사는 어느 농촌 아주머니가 기구한 자기 신세를 탄하는데 순이 어매라고 불리우는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폭풍우와 성황당이 인연이 있을 리가 없건만 순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곡절이 있었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이곳 숫재'골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 보며 10여년 동안을 살아 왔다. 날씨가 순조로워서 농사가 잘되면 그래도 가을에 가서 낟알을 구경할 수 있지만 날씨가 고르지 못해 농사가 잘 안되는 날이면 뜯어 가는 데는 사정이 없는 관공리들과 지주들은 탈곡 마당에까지 직접 나와서 지켜 섰다가 북데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깨 긁어 가는 것이였다.

그런데 여름 한철 이 곳에서는 오래'동안 한발이 계속되였다. 몇 주일째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내려 쪼이는 쨍쨍한 해'살에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금이 가고 벼 포기는 건초마냥 누렇게 시들어 갔다. 농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여보, 숫재'골에도 성황당을 다시 세웁시다.》

월성 군수 정가가 경찰 서장에게 하는 말이다.

《넘어 간 성황당을 1년씩 방임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세울 까닭이 무엇이요?》

《한발이 계속되거나 홍수가 나면 왜 관에서는 수리 공사를 하지 않느냐고 백성들이 군으로만 몰려 오니 질색이요. 세금이 많다, 공출이 많다, 무엇이 많다 하면서 하루도 불평을 들이대지 않는 날이 없는데 비 안오는 타령까지 군에 와서 하니 이거야 어디 배겨 나겠소. 성황당을 지어 놓으면 그리로도 좀 갈 것이 아니겠소》

《그야 령감이 할 노릇이지 나야…》

《짓자면 감도 있어야 하고 로력도 필요한데 그걸 동원하자면 아무래도 경찰의 힘을 빌 수 밖에는 없는 일이 아니요. 성황당 짓는데 백성들에게서 돈을 거두면 그 돈을 집 짓는 데다 다야 쓰겠소. 돈을 기밀비에 보태써도 될게 아니오.》

《한발이 계속되는 건 산신령이 노한 탓이다. 성황당을 도루 세우자》

마을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물론 고을 군수가 심복들을 시켜 퍼뜨린 말이다.

농민들은 코웃음을 쳤으나 개중에는 그 말을 곧이 듣는 사람도 있었다. 하기야 서울같은 큰 도시 한복판에서도 《장로》라는 작자가 자기 얼굴을 씻고 난 찝찔한 세수'물을 만병 통치약이라고 팔아 먹는 어두운 세상인지라 그런 말을 곧이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신기할 것은 없다.

숫재'골 언덕에 성황당이 섰다. 순경들은 집집에 돌아 다니면서 돈을 거두어 갔고 돈이 없는 데서는 돈보이 될만 한 가장 집물들을 집어 갔다. 순이 어머니와 이야기하던 그 부인의 남편은 집을 지으려고 마련해 두었던 집 재목을 성황당 건축재로 모주리 빼앗기웠다.

신축된 성황당에서 3일간이나 기우제가 거행되였다. 3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마을에는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 비는 숫재'골에만 온 비는 아니였다. 월성군 전체, 경북도 전체, 남조선 전체에 내린 비였다. 그때는 벌써 장마철이였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그것을 기우제 지낸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으로 돌렸다.

그만큼 왔으면 비는 흡족했다. 그러나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 개울물이 붓더니 형태만 남은 제방을 뚫고 사방으로 범람하며 논밭의 곡식을 삼키기 시작했다.

숫재'골 성황당에서는 이번에는 기우제 대신에 지우제가 거행되였다.

관가 파견한 무당은 제를 올리고 장고 치고 꽹과리 두드리는 소리에 맞추어 편신 뺑뺑 돌았다.

궂은 비를 맞으면서 지우제를 지내는 것은 틀림 없이 유쾌한 노릇은 아니였지만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그 지독한 제도와 정책 때문이 아니라 고릅지 못한 자연의 조화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괴로움은 참아야 했다.

비'발은 점점 굵어졌다.

꽹과리는 더 요란하게 울리고 무당은 더 빨리 맴돌았다. 비는 더 세차게 나렸고 비'발은 주위의 모든 것을 사정 없이 내려 때렸다.

《빨리, 빨리!》

무당은 악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더 극성스럽게 맴돌아쳤다.

그때 남쪽으로부터 태풍 《사라호》가 노도와 같이 밀려 들었다.

무서운 질풍과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그 바람은 번개와 같이 달려 들어 성황당과 무당을 휘감더니 공중 높이 말아 올렸다. 그리고 거대한 주먹처럼 솟아 오른 바위 우에 내던지고 동쪽으로 사라졌다.

1,460일간에 180일 조업

—엄마, 저 삼화 제철 공장은 왜 저런가?

—14년 동안에 6개월 밖에 일을 못 했으니 저럴 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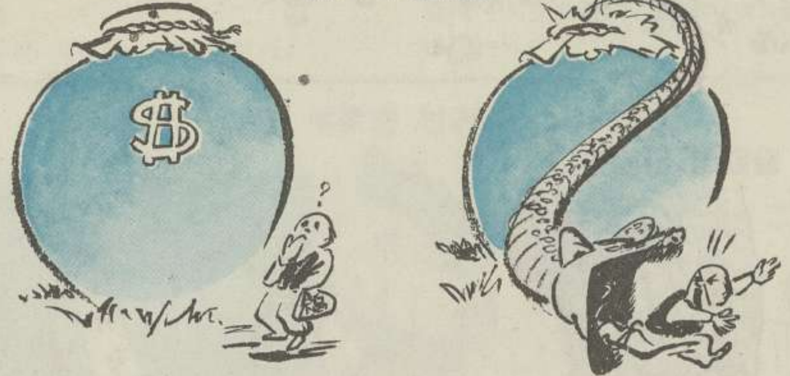
—그럼 우리가 밥 못먹는 것과 같군요

조 명식 그림

—알 속은 내가 갖고 버럭은 네가 받아라

송 용남 그림

미국식《원조》



조 명식 그림

사람에게 차레지는 것이 없다

송 용남 그림

유린되였다

남조선의 전체 공장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기업체의 다수가 미제 독점 자본의 략탈과 국내 예속 자본가의 압박 밑에서 원료, 동력, 자금난으로 계속 파산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뒤흔들리고 있다

김 성엽 그림

끝없이 따라온다

인사 불성

남조선 로동자들은 아무런 로동 보호 시설도 없고 위생 상태가 극히 나쁜 조건하에서 위험한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작업에 착수했다

백 인균 그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십장 제도를 비롯한 일제식 억압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로동 시간의 무제한한 연장 등 야만적으로 로동 강도 를 높이고 있다.

면장 감투와 백만환

신 흥순

최근 경상북도 영천군에서 있은 일이다. 《자유당》 영천 군당 위원장네 집에서 면장 감투 흥정이 벌어졌다.

《위원장님, 이거 약소합니다만 그저 저의 성의로 받아 주십쇼》

김가는 위원장 앞에다가 한 뭉치 내밀었다.

《얼만가?》

《자유당》 군당 위원장은 그 돈 뭉치를 지긋이 내려다 보며 물었다.

《100만환입니다》

《백만환? 그게 이젠 공정 가격이 돼 버렸구먼! 허허, 사실 자네로 말하면 지난번 민의원 선거 때 우리 《자유당》 립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약을 했구 그리구 또 지금두 계속 야당놈들에 대한 동태두 살펴 주구, 또한 미국과 우리 대한 정부에 반감을 가진 불온 분자들을 적발해 낸 공로루 봐서두 자넨 능히 면장 자리에 앉을만 하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이지 저도 여지껏 뿌로커로 지내 왔지만 면장쯤은 넉넉히 해 낼 자신이 있습니다》

《암 그렇구 말구, 면장 자리란 거야 우에서 하라는 대로만 허면 돼. 세금 잘 걷어 들이구, 곡식 잘 긁어 들이면 되지, 머 별거 있나?》

《그건 념려 없습니다. 면 직원두 주먹이 덩덩헌 놈으루 갈아 치우구 경찰과 손을 잡고 헌다면야 안될 턱이 있습니까?》

《그래 마침 면장 자리두 비였구 잘 됐네. 군수한테 얘기해서 곧 발령을 내리도록 할테니 내 편지 가지고 가서 우선 사무 인계나 하도록 하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면장 자리에 앉은 다음에야 위원장님의 은공을 하루라도 잊겠습니까?》

《하여간 잘 해 보게》 이리하여 김가는 의기 당당해서 집으로 돌아 왔다.

한편 영천 군수네 집에서도 흥정이 벌어졌다.

《군수님, 이건 저의 재산을 몽땅 팔아 가지고 온 겁니다. 우선 받아 두시면 제가 면장 자리에 앉은 담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박가는 돈 뭉치를 앞에 놓고 애걸하듯이 말하였다.

《얼만데?》

《모두 75만환입니다》

《75만환?》

《사실 지금 공정 가격이 백만환인 줄 압니다만 가재까지 팔게 겨우 이겁니다. 한 번 속은 셈으로 제 청을 들어봐 주십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자네는 벌써 10여년 간을 면 사무소에서 근고를 닦은 실무 능력이 있을 뿐더러 그 곳 면장놈이 딴 맘을 먹고 있는 걸 내게 보고해 준 공로로 봐서두 이번에 등용해 줄테니 모쪼록 잘 해 보게》

《네, 고맙습니다》

《곧 발령을 내려 보낼테니까 면 직원들한테 얘기하구 당장 면장 대리를 보게》

《네, 알았습니다. 그 면 사정은 제가 손'금처럼 꿰뚫고 있으니만큼 수완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가는 군수한테서 면장 감투를 사 가지고 그날로 제깍 임명장까지 받아 들고 돌아 왔다.

면 사무소에 부랴부랴 와 보니 김가란 자가 벌써 직원들에게 신임 인사까지 하고 면장 의자에 떡 버티고 앉아 있지 않는가?!

《아니 웬 사람이 내 자리에 와 앉아 있어?》

박가는 눈을 부라리고 호령을 쳤다.

《내 자리라니? 내가 이 곳 면장으로 오늘 부임해 왔는데 어디 와서 그따우 헌 수작이야? 펄적 나가지 못해?!》

김가는 버티고 앉아서 호령질이다.

《임마, 대관절 너 이따우 있니? 이렇게 군수관인까지 시뻘겋게 찍힌 사령장이 있는데두 네가 면장이야? 이 뻔뻔스런 협잡'군 놈아!》

박가는 돌돌 말아 들었던 임명장을 책상우에 펄쳐 뵈며 소리쳤다

《이 자식아, 이따우 가짜 사령장이 무슨 소용 있어?》

하더니 그 임명장을 박박 찢어 버린다.

《뭐시? 가짜? 이 자식아, 네가 가짜지 내가 가짜야?》

대뜸 김가의 멱살을 움켜 쥐였다.

《요 자식 봐라! 친다?》

《오냐, 네깟놈은 반쯤 죽여 놓겠다.》

서로 치고 때리고 물고 뜯고 뒤넘어질 치며 싸운다.

한편 군수실에서도 아귀다툼이 생겼다.

《여보, 어째서 그따우 놈을 면장으로 시키려는 거유? 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먹구 그래?》

군당 위원장은 군수를 노려 보며 을러멘다.

《그 사람이 어째서 면장 자격이 없단 말요? 그 사람은 그전부터 도에서까지도 면장을 시키자던 사람이요》

《그놈은 사상이 불온하단 말요. 사상이》

《사상이요?》

《그렇소, 그 자는 민주당놈들 하구 몰려다닌 사실이 있구, 그리구 또 자기 땅이 미군 군사 기지로 들어 갔을 때도 불평을 하고 돌아치던 자요. 난 당장 경찰에 얘기해서 그 자를 체포하도록 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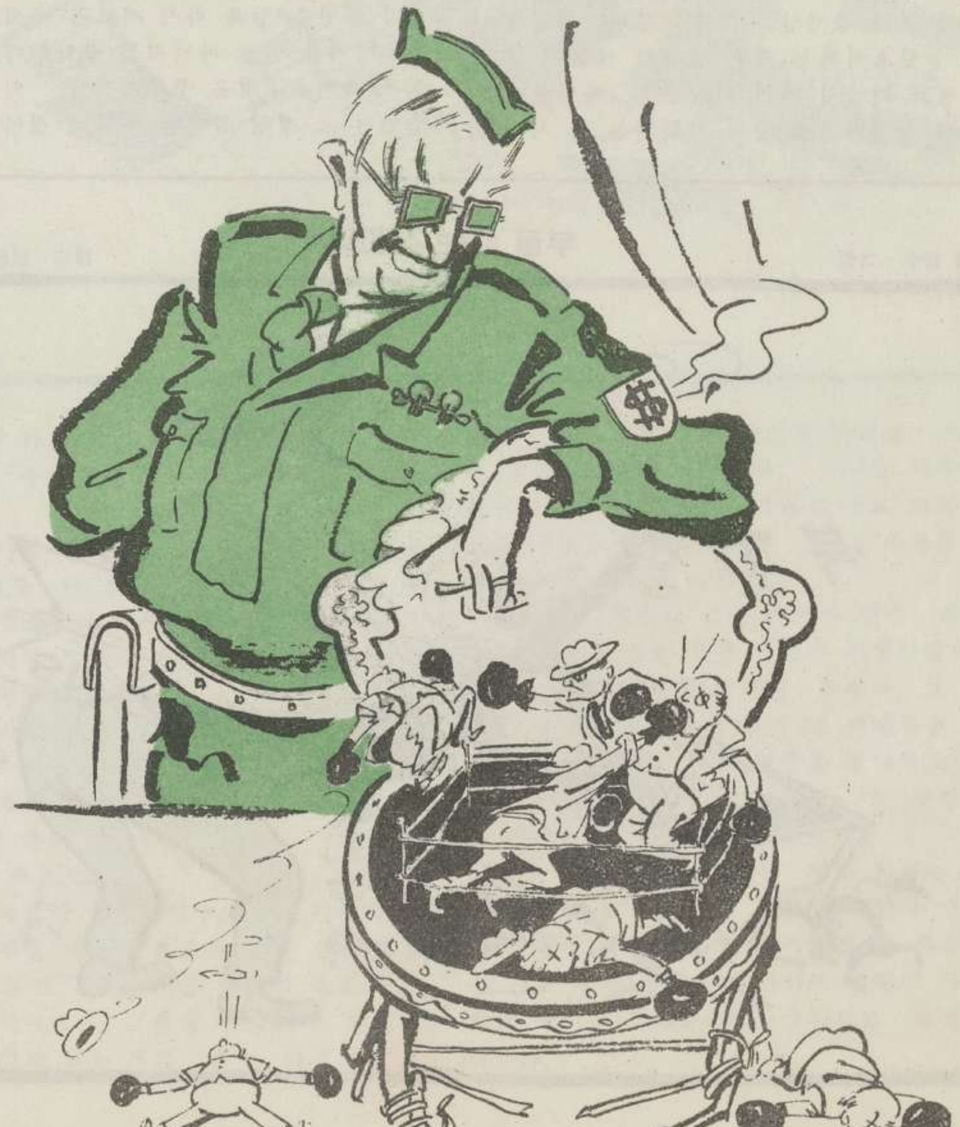
하고 서슬이 시퍼래서 군수실 문을 콱 닫고 나왔다.

그 후 군수에게 75만환에 면장 감투를 샀던 박가는 자기도 모르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경찰에 끌리워 가고 《자유당》 군당 위원장에게 100만환에 산 김가가 면장 노릇을 하게 되였다.

그래서 요즘 이곳 인민들은 그 면장을 가리켜 100만환 짜리 감투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 능택 그림



도깨비들의 장송곡

홍 길남

병적인 발작증은 흔히 주기적으로 오는 법이다. 리 승만의 발작증은 고질화된 아편 중독자처럼 그 도수가 더욱 심하여 가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나 매일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것은 리 승만의 안면 신경통에서 오는 흉한 경련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의 안면 신경통 보다 더 흉악한 《북진 발광증》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리 승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입을 벌리는 대로 《북진》을 떠든다.

《북진》이란 말은 아침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 결코 아니다. 리 승만은 이 말을 아침 저녁의 인사말처럼 씨버리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리 승만의 육체적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리 승만과 같은 물건짝만이 오늘 시대에 이런 소리를 함부로 줘여칠 수 있다. 리 승만은 《북진》을 떠들면서 항용 씨버리기를 남조선 괴뢰군을 《세계에서 세째로 강한 군대》라고 뽐내기를 좋아한다(때로는 네째라고도 한다). 리 승만이 《세계에서 첫째》 가는 군대와 《둘째》 가는 군대를 어느 것을 념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철두 철미한 괴뢰적 처지로 보아 그의 상전인 미국을 《첫째》 자리에 올려 놓았으리라는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평화 리념이 세계의 심장을 파악하고 거대한 생활력으로 장성 강화되는 현 시기에, 또 쏘련이 발사한 우주 로케트가 달에 도달한 현 시기에 그따위 것들을 가지고 몇째요 하고 떠드는 것은 실로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로 밖에 더는 될 것이 없다.

도대체 리 승만 따위가 이런 주제넘는 말을 씨버린다는 것은 속담 그대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리 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도네시야 신문 《타임스 오브 인도네시야》지는 차라리 흑사병에 걸릴지언정 리 승만을 상대로 할 수 없다고 썼다.

불란서 신문 《피카로》지는 《앞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리 승만 통치에 대하여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리 승만의 존재를 일소에 부쳤다.

조선을 방문하였던 일본의 한 사회 활동가는 《리 승만은 만화적 존재》라고 야유하였다.

파연 현대 만화가들이 장 개석과 리 승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볼 때, 이 말의 진 의도를 우리는 알만하다.

우리는 리 승만의 정신 상태 뿐만 아니라 그의 생리적 구조까지도 미국의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리 승만이 단독으로 사고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늘까지 미국에 가서 더 많은 세월을 보냈으며 전'적으로 미국 상전의 부양하에 있었으며 현재도 그렇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리 승만은 양복 바지 저고리 우에다 조선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즉 속은 양복이요, 겉은 두루마기다. 이것은 리 승만이 그 정신 상태는 미국의 것이요, 간판만은 《조선 사람》이라는 표징으로도 된다. 미국의 철저한 괴뢰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측면이기도 하다.

따스 통신의 옵써버 와씰리 하리꼬브는 자기 론평에서 리 승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워싱톤에서 야웅하면 서울에서 야웅하는 것은 이미 비유'거리로 되여 있다》고 썼다.

사실 리 승만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고삐를 잡고 있는 미국 상전의 울부짖음이란 것은 말할 여지조차 없다.

리 승만이 오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그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말한다면 응당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총칼에 대하여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리 승만에게서 그것을 제외한다면 남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의 총칼 자체도 그의 대변자로 그의 지주로 되여 있는 리 승만의 존재와 련관성을 가진다.

우선 여기서 리 승만의 괴뢰성과 그의 육체적 멸망 상태를 실증하는 또 하나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주간 잡지 《세까이 슈호》 7월 30일호는 수십만 재일 동포가 먹고 살아 갈 길이 없어 그곳을 떠나 조국에로 귀국하려는 바로 그 일본으로 살'길을 찾아 건너 오는 남조선 인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중 리 승만과 직접 만난 두 사람과의 담화를 인용하였는 데 한 사람은 《리 승만은 숙환으로 실명에 가깝다》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은 《10분 정도 말한 후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착란 상태에 빠진다》고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필자의 말은 리 승만이 이제는 완전한 폐물 상태에서 미제의 괴뢰적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폐물을 앞세우고 남조선을 총칼로 통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도 역시 가련한 처지에 있다.

《도깨비 친구는 도깨비》라는 말과 같이 오직 인간 쓰레기와 폐물들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립장도 역시 국제적 분야에서 볼 때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쏘련의 우주 로케트가 달을 정복한 사실 앞에서 초상난 집처럼 뒤집히고 있는 미국의 꼴만 보아도 자기 세대를 다 산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더 길게 설명할 한 푼의 가치조차도 없다. 폐물의 주인은 고물상이며 도깨비 주인은 큰 도깨비다. 새끼 도깨비나 큰 도깨비나 본질은 같으며 그들의 운명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제의 총칼을 등에 엎고 《북진》 나발을 불어대는 리 승만의 울부짖음은 그들 자신의 운명을 고하는 장송곡에 불과하다. 빈 깡통을 치는 소리에 주의를 돌릴 사람은 세상에 없다. 도깨비들의 장송곡에 누가 주의를 돌리겠는가.

원 광수 그림

부질 없는 잠꼬대

세계 일주 항공 려행권

로 철

얼마전에 영국의 대 부르죠아 신문 〃데일 메르〃지 제 4면에는 전면에 걸쳐 다음과 같은 광고가 나 붙었다.

세계 일주 무료 항공 려행

본 회사는 대영 제국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일주 항공로를 개척하게 된 경사를 공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하여 신청자중 270 명에게 무료 려행권을 증정함

신청 기일: 8월 2일～5일

공민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크리트 브리트쉬 코멜 항공 회사 백

—참 희한한 소식이다!

—코멜 백작이 갑자기 자선 사업에 흥미를 붙이게 된 모양인가?!

—무료라… 코멜, 이 돼지가 꼭 무슨 음모를 꾸미는 모양이 틀림 없는데…? 하고 신문을 받아든 영국 공민들은 우선 머리를 기우뚱 거렸다. 그것은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코멜 백작이라고 하면 영국의 유명한 대 독점 자본가이며 보수당과 영국 참의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 정치가〃이다. 그러나 코멜의 이름이 유명한 것은 그에게 돈이 많고 권세가 당당한 그것보다도 그가 고금에 보기 드문 수전노라는데 더 큰 근원이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지금도 그는 40 여년전 결혼식 때 처가'집에서 지어 준 연미복을 한 번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입고 다니고 있다 한다. 이 지독한 수전노가 한명도 아니고 270 명에게 무료로 세계 일주 항공 려행을 시켜 준다니 이것이야 말로 희한한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백작 나리가 갑자기 미치지나 않았나?

아니다, 코멜 백작은 결코 미치지 않았으며 아직 노망할 기력도 아니다. 그가 이러한 큰 〃선심〃을 쓰게된 데에는 코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큰 정치적 문제„가 작용했는데 그는 곧 영국의 "동맹국„인 미국 "친우„와의 관계 문제이다. 원래 런던을 떠나 세계 일주 항공 려행을 하려면 대서양을 지나 미국의 여러 도시를 거쳐야 하고 다음에는 태평양을 지나 여러 곳에 머물었다 떴다 하여야 하는데 그 여러 곳 중 대부분은 미국 통제 하에 있는 비행장들인 만큼 물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만 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금년 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정부와 교섭을 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극히 향기롭지 못한 것이였다. 미국 항공 회사들이 세계 일주 항공 려행이라는 이 매력 있는 비즈네스를 영원히 독점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거할 때가 왔소!

백 인균 그림

《아니, "동맹국„ 사이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영국에 있는 미국의 모든 군사 기지를 다 들어 내라!》하고 영국의 부르죠아 신문들이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미국 정부는 마지 못해 미국 비행장 착륙을 허가해 주었으나 그 대신 비행장 사용료를 바싹 높여 놨다. 어찌나 높여 놨는지 세계 일주 항공 려행을 몇번만 조직해도 "크리트 브리트쉬 코멜 항공 회사„가 파산될 지경에까지 올려 놓았다.

《어데 두고 보자!》

하고 패씸한 미국 "친우„들의 처사에 대하여 복쑤를 벼르고 벼르든 끝에 코멜 백작이 궁리해 낸 "묘안„이 곧 이번의 무료 항공 려행 조직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일주 항공로에 대혼란을 일으키며 그의 독점에 타격을 주자는 것이 코멜의 심사였다. 그리고 아무리 철면피한 미국 실업가들이라도 무료 려행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처럼 높은 사용료를 받아낼 수 없을게 아닌가.

…그리하여 요란한 선전 속에서 영국 력사 최초의 세계 일주 항공 려행은 거행되였다. 그것은 전후 네번이나 거행 되였다. 그 육중한 항공기가 런던의 안개 낀 비행장을 떠날 때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끝마치고 비행장에 내릴 때마다 코멜 백작, 이 수전노의 가슴은 그 얼마나 앓았겠는가!

…그후 며칠이 지나 "데일 메르„지에는 다음과 같은 보도 기사가 실렸다. 《얼마 전에 영국 정부 항공국은 영국 비행장을 사용하는 대양 횡단 려객기에 한하여 비행장 사용료를 종전의 32%를 더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력한 물질적 증거》

박 문성

9월 10일 아침 백악관 공보 비서 해거티는 황급히 대통령실을 찾아 들어갔다.

—각하, 사나니코네는 우리의 일을 망쳐 버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 리사회에서 미국이 체면을 무릅쓰고 모처럼 조작해*낸 〈라오스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분파 위원회〉도 허사로 돌아갈 우려가 있사옵니다.

아이젠하워에게 아침 인사를 할 경황도 없이 해거티는 자못 침착치 못한 태도로 불쑥 이렇게 말하고나서 한장의 전보문을 내놓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엔티엔(라오스의 수도)으로부터의 9월 9일발 에이. 에프. 피 통신의 보도이다.

《이곳 라오스 판변측은 당면한 유엔 조사 분파 위원회의 도착에 약간 당황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자들에게 내놓을 것인가라고 당황하고 있다.

분규가 6주일전에 발생한 이래 기자들은 수도에서 이러저러한 성들과 사무실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리고 유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부 주들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소식들을 쫓아 다녔다.

국방성의 보도가 공보성의 보도와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았고, 참모 본부의 보도는 왕왕 국방성의 보도와 모순되였다.

…설사 특별 분과 위원회가 설치되였고 동옵써버들이 여기 저기 마음대로 가볼 수 있도록 비행기를 한대 장만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자들 보다 더 알지는 못할 것으로 위구되고 있다.

…북부 월남의 간섭에 대한 물질적 증거에 관하여 현재까지 기자들에게 제시된 것은 1937년 독일제 보총 한자루 뿐이다》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엄연히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상정시켜 〈라오스에 대한 월남 민주 공화국의 침략〉이란 날조된 구실하에 유엔 존립의 기초인 5대국 일치 가결 원칙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소위 《라오스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분과 위원회란 허수아비 기구를 조작해 낸 워싱톤의 지배 계층들에게 에이. 에프. 피 통신의 이 보도는 커다란 충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기타 반향 말입니까? 비록 공산 진영에서 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의 미국의 행동은 《도적이 도적이야》라고 한 격이라는 비난이 자자합니다.

각하!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라오스에 대한 월남 민주 공화국의 침략》에 관한 《유력한 물질적 증거》를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 ×

워싱톤의 백악관에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 라오스의 사나니코네 도당은 다음과 같은 《공보》를 련이어 발표하였다.

—《1명의 북부 월남인 전범자》를 체포했다.

—《9월 12일 북부 월남 비행기가 삼누아 상공을 비행》했다.

《라오스에 대한 월남 민주 공화국의 침략》에 대한 이 새로운 《유력한 물질적 증거》는 비엔티안에 있는 내외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기자들은 라오스 왕국 정부에 그 《북부 월남인 전범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삼누아 상공을 비행하였다는 《북부 월남 비행기》의 형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런데 라오스 당국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 하였다고 한다.

—《북부 월남인 전범자》는 비행기에 앉힐 자리가 없어서 비엔티안으로 실어 올 수 없었다.

—삼누아주 상공을 비행한 《북부 월남 비행기》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이 얼마나 가소로운 수작질인가!

라오스에서 국내 전쟁을 재 도발하여 놓은 미제와 사나니코네 도당은 오늘 그의 책임을 그 누구에게 전가시켜 보려고 책동하나 그럴 수록 그들의 극악한 정체만을 더욱 날날이 들어내 보일 뿐이다.

<본—파리 추축국>이 생겨나고 이를과 영국파의 갈등의 결과 구라파를 두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옥신 각신하는 <동맹국>들의 우에 걸터 앉아 자기의 <군림>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제의 술책과 이에 대한 영, 불, 서독의 제각기의 망발 사태는 제국주의 진영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당황한 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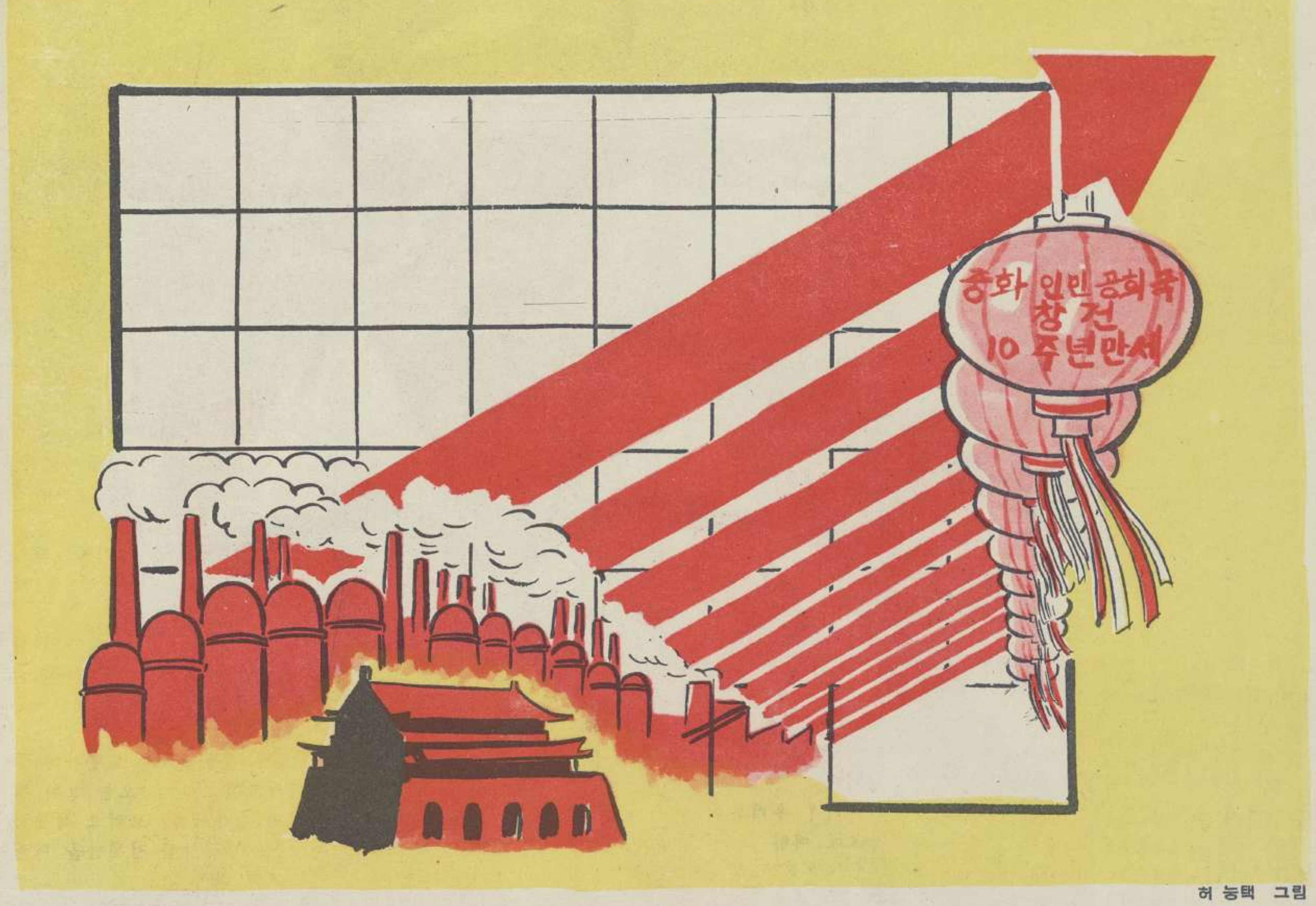
 백 인규 그림

침략자들의 상투적 수'법

미제 침략자들은 비법적으로 소위 《라오스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분파 위원회를 날조함으로써 라오스 내정 간섭에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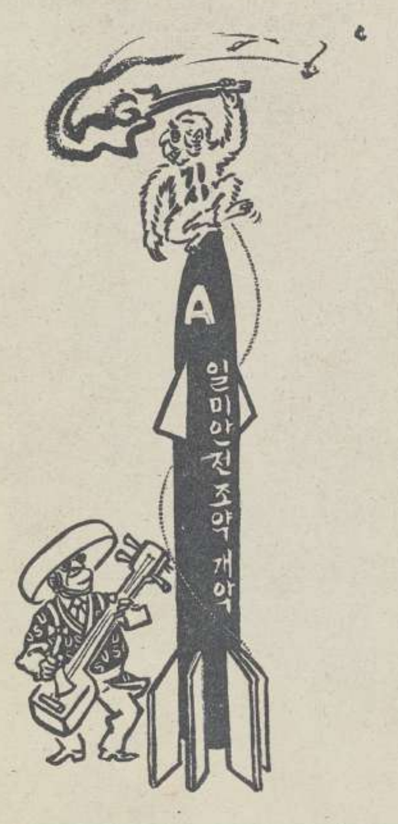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약진 대약진



허 능택 그림

위험한 노리개



또 다시 난관을 조성하는 기시의 관문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798
발행 1959. 10. 11
(값 40전)

중국 인민의 위대한 승리

장 명룡 그림